

 국토교통부		<h1>보 도 자 료</h1>			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		배포일시	2020. 7. 10.(금) 총 3매(본문2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 당 자	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곽병철, 주무관 김영두 • ☎ (044) 201-3998, 4003		
보 도 일 시		2020년 7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 12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	

전기이륜차로 배달해보자 ... ‘그린배달서포터즈’ 출범

- 국토부, 10일 배달대행업계 전기이륜차 도입 · 확산 위한 협의체 발족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7월 10일(금) 배달대행업에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배달대행업계,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업계 등이 참여하는 ‘그린배달 서포터즈’를 출범하였다.
 - 출범식에는 우아한청년들, 메쉬코리아, 바로고, 로지올, 쿠팡,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와 대림오토바이, 와코모터스, 바이크뱅크, 무빙 등 전기이륜차 업계, 삼성SDI,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였다.
 -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련 업계가 서로 협력하여 배달기사 등을 대상 홍보활동 등 전기이륜차 사용을 촉진하고, 활성화 정책 수립 자문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날 테스트용 전기이륜차 보급, 충전인프라 확충, 이륜차·배터리 성능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 - 특히 전기이륜차에 대한 배달기사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배달 기사들이 테스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.

□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충전 인프라 구축)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배달기사가 주로 이용하는 휴게시설, 도로변, 상가 밀집지역 등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 시설 설치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- 전기이륜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약 60km 수준으로, 하루 많게는 200km까지 주행하는 배달기사들이 전기이륜차를 이용할 경우 배터리를 여러 차례 충전해야 하며, 충전에는 약 4시간이 걸려 배터리 교환방식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.
- (성능 개선) 배달에 적합한 성능을 갖추기 위해 배달업계, 전기이륜차·배터리 제작업체 등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(홍보 및 인식개선) 전기이륜차의 친환경적 효과, 비용절감 등 장점을 홍보하는 등 배달기사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가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은 “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10,000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할 경우 연간 2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고, 이는 약 2,000ha에 이르는 소나무 숲이 조성되는 효과”라며,

- “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성장 하고 있는 배달대행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곽병철 사무관(☎ 044-201-399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